

中華圈 大衆文化의 한 面貌, 韓國에서의 “주걸륜(周杰倫)”¹⁾ 읽기

金貞恩* · 丁甫榮**

目次

1. 들어가는 말
2. 대만 대중문화의 아이콘 “주걸륜”
 - 2-1. “주걸륜” 등장의 문화적 함의
 - 2-2. “주걸륜”을 통해 본 한국에서의 대만 대중문화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전지구화 시대, 국가 간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 경계의 초월현상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써 각 나라의 문화가 서로 상호 연관을 맺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각 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한신대학교 중국문화정보학부 강사,
airin99@hanmail.net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samtiman@naver.com

1) 본 고에서는 인명표기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주걸륜, 유덕화와 같이 한자독음으로 호명되는 경우는 한자독음으로 표기하고 천카이저 혹은 장이머우 같이 중국어 발음으로 호명되는 경우는 외래어 표기법에 근거하여 표기했다. 이는 한국에서 이들의 이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호명될 때 나름의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물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 삼국은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인 공통분모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형성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예로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 한국 배우 배용준의 입지가 비교적 확고하게 굳혀진 것을 들 수 있다. 배용준에 열광하는 일본 팬덤은 소위 ‘아쭈마 부대’라 부를 수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 주 구성원인데 이들은 배용준과 그가 주연한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7,80년대 일본을 추억하고 그 향수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문화적 경험과 정서를 공유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드라마 <대장금>의 열풍이 불었던 것도 한 예로 들 수 있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으로 활발히 유입되면서 ‘한류(韓流)’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코드가 되었고 ‘한류’의 영역은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확장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류의 중심에서 발판이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드라마, 특히 트렌디 드라마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렇게 트렌디 드라마 일색이던 한류 콘텐츠에서 <대장금>은 한 여성이 갖은 고초 속에서 성공을 이루어 낸다는 비교적 뻔한 스토리의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소재와 다양한 볼거리를 무기로 중화권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문화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혹은 한국과 중국(대륙)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에 시선이 집중되어있다. 그렇다면 일본과 대륙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지역과의 문화 교류는 어떻게 되었는가? 특히 대만을 위시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되었고 소비 되고 있는지 논의하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로 대륙중국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로 중국과 오랜 교류의 맥이 끊어진 우리가 한중수교 이전까지 ‘중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홍콩과 대만이 주를 이루었다. 대만은 우리에게 ‘정치적

중국'으로 인식되었고 홍콩의 경우 '문화적 중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부터 홍콩영화와 한국영화계는 한·홍 합작영화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홍콩영화가 아시아 영화시장을 주도하며 할리우드 영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시절 한국에서 홍콩영화와 중화권스타들은 한국영화와 스타들을 압도하는 인기를 누렸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거의 최초의 중화권 월드스타라 할 수 있는 이소룡(李小龍)을 비롯한 성룡(成龍)·이연걸(李連杰) 등의 쿵푸스타, 유덕화(劉德華)·여명(黎明)·곽부성(郭富城)·장학우(張學友)에서 금성무(金成武)·임지령(林志穎)·오기룡(吳奇隆)·소유봉(蘇有朋)에 이르는 청춘스타, 임청하(林靑霞)·왕조현(王祖賢)과 왕정문(王靖雯/王菲) 등의 여성스타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사랑받은 중화권 스타들의 편폭은 매우 넓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홍콩영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미 대륙중국과 대만 출신의 스타들이 대거 선보였고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구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홍콩영화의 히로인 임청하와 왕조현을 위시한 대만 출신 스타들은 홍콩-대만 연예산업의 긴밀성으로 인해 홍콩 출신 스타들과 함께 홍콩영화와 연예계를 주름잡는 아이콘으로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았고, 임지령·금성무·오기룡·소유봉 등 소위 '대만 4소(小)천왕'이라 불리는 청춘스타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대만에 대한 한국 팬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들은 얼핏 보면 홍콩, 대만, 대륙이라는 출신 성분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중화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소비된 것 같지만 각각의 팬덤은 이들의 출신 성분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화권 스타들의 인기는 한중수교와 홍콩반환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홍콩영화의 쇠락, 그리고 '한류'의 유행이라는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점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련한 추억으로 자리 잡아 가는 듯 했다. 연예잡지를 도배하던 중화권 스타들의 사진과 화보, 학교 앞 문구점을 점령했던 이들의 사진이 들어간 각종 문구용품들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대륙 출신의 장쯔이(章子怡), 판빙빙(范冰冰) 등의 몇 명의 스타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중화권 스타들이 한국에서 각광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지금 대만 출신의 젊은 스타 ‘주걸륜(周杰倫)’이 한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예전의 중화권 스타들의 인기와 지명도에 비한다면 비교적 소규모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만 조용한 혁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不能說的秘密, Secret, 2007)> 열풍’과 그 열풍의 중심에서 그를 둘러싼 문화적 함의와 다양한 자장(磁場)들을 살펴봄으로써 한중 문화교류의 한 면모를 형성하고 있는 대만과 한국과의 문화교류와 대만 대중문화의 한국유입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2. 대만 대중문화의 아이콘 주걸륜

1992년 한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사실 양국의 교류는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과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대만 관련 교류는 주한대만대표부와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대중문화가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관계 기관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비교적 많은 젊은이들은 주걸륜이라는 대만출신 엔터테이너를 알고 있다.

1979년생인 주걸륜은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배우 그리고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16살부터 작곡 실력을 발휘했다. 1997년에 신인 발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탁돼 유덕화, 장학우, 곽부성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곡가로 활동하다 2000년 첫 앨범부터 빅히트를 기록하며 중화권 최고의 스타로 올라섰다.¹⁾ 최근에는 영화로 발을 넓혔다. 2005년 그의 처녀작인 <이니셜D(頭文字D, Initial D, 2005)>를 시

1) 「亞 톱스타 주걸륜, 1월9일 전격 내한」, 『조이뉴스24』, 2007년 12월 28일자

작으로 2006년에는 세계적인 감독으로 인정받은 장이머우(張藝謀) 감독과 주윤발(周潤發), 궁리(鞏俐)와 함께 <황후화(滿城盡帶黃金甲, Curse Of The Golden Flower, 2006)>에 출연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주결륜 자신이 직접 사운드트랙 작업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작업했으며 여기서 감독, 극본, 연기 등을 모두 소화해내 다시 한 번 재능을 뽐냈다.

그렇다면 아직 소수에 불과 하지만 주결륜이 한국에서도 환영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중화권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스타이다. 그러나 그는 중국 대륙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소비자들이 느와르(noir) 영화에 향수를 가지고 있는 홍콩 출신도 아니다. 그는 대만 출신이다. 현재 대만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다소 거리감 있는 곳으로 1992년 단교 이후 더욱 관계가 소원해진 곳이다. 대만 출신인 그가 한국에서도 마니아층을 형성하면서 조용한 한국 소비를 끌어내고 있는데, 그가 한국에서 이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특출한 재능과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그가 작지만 강한 지지를 받는 것은 상당수 그의 재능에 기인하고 있다. 아시아를 통 털어서 보기 드물게 작사, 작곡에 모두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영화에 있어서도 <황후화>에서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연기력에 재능이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이러한 그의 행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사실 그가 지난 2008년 1월 자신의 영화 홍보차 내한했을 때도 한국 영화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의 음반이나 영화를 접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었다. 이것은 그가 지닌 재능이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잠재 소비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주결륜” 등장 of 문화적 함의

2008년 1월 10일 한국에서 주결륜의 감독 데뷔작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개봉했다. 자신의 작품 홍보를 위해 내한했던 주걸륜의 이 영화를 두고 한국 영화 관계자들과 관객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주걸륜 자신의 첫사랑을 소재로 삼은 이 영화를 두고 올 초 개봉당시 한국의 영화 잡지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예술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피아노를 전공으로 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만큼 영화 전반에 걸쳐 감미로운 음악들이 귀를 즐겁게 한다. 주인공들을 처음 만나게 하는 매개도 피아노 악보이며,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매개도 피아노 연주이기에 영화 속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다. (중략) 주인공들이 나누는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과 운명적 사랑을 통해 성숙해가는 모습이 담긴 소중한 음악 스코어들은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음악영화를 탄생시켰다.²⁾

가수 출신인 1979년생 주걸륜이 각본과 연출을 담당했다고 해서 이 영화가 유치할 것 같다는 선입견은 가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잘 만든 멜로영화가 그렇듯, 복선과 반전이 담긴 탄탄한 플롯과 효과적인 감정 표출을 통해 청춘의 아름다운 나날을 찬양한다. 불법복제 파일을 통해 미리 접한 (잠재)관객이 대단한 호평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 개봉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도 하다.³⁾

영화 관계자들만이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준 것이 아니다. 일반 관객들도 이 영화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의 여러 사이트들을 보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들과 구성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또한 제작을 맡은 주걸륜 자신이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음악을 다 소화해낸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한국의 한 음료 광고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예능프로의 중간 삽입곡으로 사용되었으며 각 통신사의 모바일(mobile) 벨소리 서비스에서도

2) 『무비스트』, 2008년 1월자

3) 『씨네21』, 2008년 1월 9일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주결륜이라는 아이콘이 어느 정도 과급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런 현상을 가능하도록 한 까닭은 무엇일까? 또한 주결륜 이전에 한국에서 어떤 대만의 대중문화가 호평을 받았을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은 2007년 중화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색, 계(色, 戒, Lust, Caution, 2007)>와 함께 가장 큰 호평을 받았으며 각종 상을 휩쓸었다. 한국에서 2008년 초 개봉할 당시 한국의 영화 배급사는 대만 관광청 서울사무소와 함께 ‘대만 여행 수기 쓰고 시사회 티켓 받자’라는 이름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소도 서울의 명동의 그리 유명하지 않은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조용하지만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영화가 한국 관객들의 코드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영화를 보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매개로 대만 단수이(淡水)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처럼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관객에게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한 작품이 결코 아니었다. 이 작품 전에도 할리우드 자본의 음악영화 <어거스트 러쉬(August Rush, 2007)>가 한국에서 상당한 흥행을 거둔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소재의 영화라도 할리우드 영화와 아시아 영화는 차이가 있고 대만 영화의 경우 그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한국 관객을 찾아온 중국대륙 영화와 홍콩 영화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주류였다. 예를 들면 장예모 감독의 <영웅(英雄, Hero, 2002)>, <황후화>, 천카이거 감독의 <무극(無極, The Promise, 2005)>, 2008년 여름 오우삼 감독의 <적벽대전: 거대한 전쟁의 시작(赤壁, Red Cliff 1, 2008)>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영화들은 많은 자본을 투자한 영화들이었다.

하지만 대만 영화의 경우 많은 자본을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감성적 코드를 이용하여 마니아 관객을 형성하는 편에 속한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이런 성격에 가장 잘 드러내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영화가 한국에서 호평만 얻은 것은 아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時をかける

少女, The Girl Who Leapt Through Time, 2006)>와 스토리 구조가 비슷하다는 혹평과 함께 주걸륜 본업이 배우가 아닌 가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도전과 기존 주걸륜 자신이 하던 음악과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영화 음악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평가까지만 긍정할 수 있다는 평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혹평보다는 호평이 더 많은 것을 본다면 그의 감독 데뷔작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배급사인 스폰지는 2008년 5월 15일부터 약 2주간 관람료를 1000원만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비밀> 1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영화 개봉 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영화가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실이다. 영화 속에서 주걸륜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했으며 출연 배우들에게도 직접 피아노 연주를 주문했었다. 클래식 성격을 띠는 이 음반은 한국 음반시장에 출시 이후 판매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 관객들의 음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피아노 음악이 전체적 ost이지만 그게 너무 좋다. 톱퉁 튀는 그런 선율”⁴⁾

“영화를 보면서 내내 즐거웠던 건 내 귀를 간질이는 아름다운 음악들. 약간 어두운 색조의 딱 내 취향의 분위기. 음악이란 건 사랑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요소”⁵⁾

“이 영화의 중간중간 나오는 피아노 연주를 보는 재미가 더더욱 쏠쏠하다. 특히 ‘피아노 배틀’ 부분. 말 그대로 현란하고 빠른 손놀림에 눈을 땔 수가 없다.”⁶⁾

“연신 들리는 피아노 선율이나 감미로운 노래 그리고 부드러운 영상미와 색감이 좋다.”⁷⁾

4) <http://blog.naver.com/tlsgdhk?Redirect=Log&logNo=30035527119>(2008.11.20)

5) http://blog.naver.com/holic_jj?Redirect=Log&logNo=30035649654(2008.11.20)

6) <http://blog.naver.com/co3239?Redirect=Log&logNo=130035813188>(2008.11.20)

7) <http://blog.naver.com/pinakiyu?Redirect=Log&logNo=130035775410>(08.11.20)

이처럼 음악과 영화 중간 중간의 장면이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골수팬을 형성했다. 거기에 주걸륜이라는 한 연예인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가령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감독, 극본, 연기 등 팔방미인으로 나선 그의 활동에서 있어서 대단하다는 찬사를 보냈다.

여기에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의 이미지가 한국 관객들에게는 소비하기 적당한 대상으로 다가왔다. 일례로 평범한 한 고교생의 첫사랑과 피아노라는 매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장르에 여러 가지 매개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러한 소재는 진부하게 다가오지만 소비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들을 통해 감정적 친화, 자기 동일시, 모방 등의 형태로 반응을 보이는데⁸⁾ 이 영화에서 주걸륜이 한국 관객에게 보여준 모습은 감정적 친화 혹은 자기 동일시로 볼 수 있겠다. 영화에서 보여준 주걸륜의 이미지와 다재다능한 능력에 힘입어 2010년 1월 15일 현재 다음(daum)에 개설된 주걸륜 팬 카페의 가입자 수는 10,637명이 넘는 상태이다.

주걸륜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조용하게 한국에서 호평을 받기 전 한국을 찾은 대만영화는 주로 상업 영화가 아닌 예술영화였다. 그 일례로 2008년 봄 다시 한 번 개봉했던 <비정성시(悲情城市, A City Of Sadness, 1989)>를 들 수 있다. 허우샤오셴(侯孝賢)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89년 제작되었으며 제26회 금마장(金馬獎) 최우수 감독상, 제4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으며, 서정적 사실주의 영화로 뉴웨이브의 총결산이라 일컬어진다. 이 영화는 대만이 해방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2·28사건을 포함한 대만의 격변기를 다룬 서사극이다. 거기에 2·28사건 자체 보다는 정치 격변기에 대만의 한 가족이 겪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그리는데 역점을 둔 작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류의 예술영화를 통한 대만 문화가 한국에서 파급효과를 갖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사실 그 파급력도 상업성을 전면으로 내세웠던 홍콩영화에

8) 리처드 다이어 지음/ 주은우 역 『스타-이미지와 기호』, 한나래, 1995, 47쪽.

비해 극히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홍콩 상업영화에 주연으로 활동했던 대만출신 스타들이 각광을 받기는 했으나 이들에 대한 팬덤이 대중적으로 대만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와호장룡(臥虎藏龍,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2000)>이 흥행을 거두면서 다시 한 번 대만영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비록 여러 지역이 합작한 영화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흥행과 비평 모두를 아우르며 가장 성공적인 영화 행보를 이어가는 중화권 감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대만출신의 이안(李安)감독의 영화였기 때문이다. 2000년 <와호장룡>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상을 거머쥐고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 2005)>과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술한 화제를 모았던 <색, 계>로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연달에 석권하면서, 그의 출신지인 대만과 그가 대만에서 작업할 당시의 영화들이 다시 한 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작품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지닌 작품을 연출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이안 감독이 비록 지금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감독이지만 그의 출신이 대만이라는 점에서 다른 대륙과 홍콩 출신 감독들과 비교되었다.

주걸륜이라는 중화권 아이콘 이전에 한국 문화시장에 유통된 대만영화는 이안이 연출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예술영화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 관객들에게 외면을 받았었고 그것은 비단 한국에서 뿐 아니라 대만 자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덕창(楊德昌)과 차이밍량(蔡明亮) 두 거장 감독이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였을 때 메스컴에서만 요란스러웠을 뿐, 실제로 대만에서는 거의 상영되지 않았다. 물론 이는 이 두 감독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술영화에서 오락영화에 이르기까지 대만 영화산업 전체가 거의 괴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⁹⁾

9) “현대 상황이 가장 어려운것은 타이완이다. 타이완의 뉴웨이브가 빛을 발하던 1990년대 초반 몇 년간 타이완의 영화들은 흥행과 비평 양측의 호의 속에 순조롭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타이완의 영화산업은 현재 그 존재조차 분명치 않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근 외, 『중국영화의 이해』, 동녘, 2007, 202쪽 참고.

1990년대의 대만 영화는 1980년대 국제적으로 쌓아올린 명성에 힘을 입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인 영화 산업이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지면서 1990년 81편의 영화가 제작된 것을 기점으로 점차 제작수가 감소하여 매년 20~30여 편의 영화들이 제작되다가 2003년에 이르러서는 단 14편의 영화가 제작되는 상황이 초래되고야 말았다.¹⁰⁾ 물론 그 후 다시 제작수가 증가하여 2005년에는 40편의 영화가 제작되기는 했지만, 2001년 대만영화가 대만 영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그쳤고 현재도 1%를 밀도는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대만의 영화시장에서 자국 영화는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¹⁾

양양(梁良)은 이러한 대만 영화 시장의 침체와 관련하여 크게 4가지로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첫째 대만 당국의 영화 정책의 오점이 대만 영화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 시켰고, 둘째 대만의 영화 경영자들이 얕은 안목으로 눈앞의 이익만 챙길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영화 산업 발전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 대만영화 창작인들의 공백과 설상가상으로 일부 감독들은 영화제 참가 작품만 연출하며 관객의 편차를 무시하고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에 있어서 컴퓨터 기술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시청각 효과를 앞세운 할리우드 영화의 적극적인 ‘전지구화’ 선전에 대만영화가 불공평한 경쟁력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했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주걸륜은 다소 두드러지는 인물이다. 설령 그의 본업이 영화가 아닐지라도 대중음악과 영화를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감독 데뷔작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한 한국 관객들의 호응을 통해서 아이콘으로써 그가 가진 문화적 잠재성이 한국의 대중문화 코드와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0) 임대근 외, 위의 책, 225쪽 <표7> 참고.

11) 周星, 『中國電影藝術史』, 北京大學出版社, 2003. 이 책에서는 중국 대륙 영화와 더불어 홍콩, 대만 영화를 언급하는데 대만의 경우 대만 영화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대표 감독들에 대한 언급과 대만 영화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대만 영화 시장의 괴멸과 함께 자금, 창의성, 창작개념 부족을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12) 梁良, 「九十年代臺灣電影的政策」, 電影藝術, 2001年 4月, 103~106쪽.

2-2. 주걸륜을 통해 본 한국에서의 대만 대중문화

이렇듯 한국에서 주걸륜은 보기 드물게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화권 대중문화인이며 대만 출신으로는 더욱 드물다. 그렇다면 중화권의 대표 아이콘으로 불리며 대만 출신으로는 최근 찾아보기 힘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를 통해 우리는 한국으로 유입된 대만 대중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한국시장에서 중국 혹은 홍콩 대중문화는 이미 익숙하다. 일례로 중국 대륙 출신의 장이머우 감독이나 천카이거 감독은 한국인들에게 친근한 이름이며 홍콩의 경우 지난 1970~90년대 초 한국에 불었던 홍콩 무협영화와 느와르 영화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중국 대륙과 홍콩 대중문화는 비교적 익숙하며 특정 세대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문화적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령 4편의 영화를 남긴 이소룡(李小龍)은 과거 1970년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동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상이다. 2004년 개봉된 한국영화 <말죽거리 잔혹사(Spirit Of Jeet Keun Do, 2004)>에서는 영문제목에서부터 이소룡에 대한 그림자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영화 곳곳에 이소룡에 대한 체취를 심어놓았다. 또한 각종 CF나 드라마 속에서 그에 대한 패러디나 암시를 찾아볼 수 있고, 수 많은 코미디언들이 그의 특징을 흉내내어 희화화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만 대중문화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한국시장에서 대만 대중문화는 아직까지 ‘변방’에 해당한다. 1992년 단교이후 대만은 한국인들 시야에서 멀어졌으며 넓은 중화권의 일부분으로 편입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만은 그저 중화권의 일부로 대만만의 독특

한 문화는 홍보되어 있지 않아요. 대만 본국에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에서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는 일본에서의 홍보가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¹³⁾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드라마를 필두로 하는 대만 대중문화의 유입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만화 <꽃보다 남자(花より男子, Hana Yori Dango)>를 원작으로 한 트렌디 드라마 <유성화원(流星花園, Meteor Garden)>을 시작으로 한동안 대만 드라마, 속칭 ‘대드’가 한때 마니아층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킨 바 있다. 마니아층을 형성했던 이들 대만 ‘우상극(偶像劇)’들은 대부분 대만 자체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일본의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것들이었으며, 특히 공중파보다는 케이블TV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대중문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비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만식 트렌디 드라마의 유입은 한국내의 중화권 대중문화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중화권 대중문화가 홍콩영화나 대륙중국의 거장 감독들의 영화에 기반을 둔 액션과 무협 코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적 특색이 너무 강조된 것이었다면 대만 우상극의 유입은 젊고 뛰어난 외모를 갖춘 청춘스타들을 앞세운 모던한 감각의 세련된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¹⁴⁾ 그리하여 이러한 대만 트렌디 드라마는 한국에서 마니아층을 형성하였다.

13) 2008년 10월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이 인터뷰는 주걸륜이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을 내한했을 당시 대만관광청에서 자국의 영화 홍보와 관광지 홍보를 위해 협찬을 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시 일을 진행했던 담당자와 가진 것이다.

14) 이에 대해 『씨네21』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홍콩에서 출발, 대만으로 갈아탄 중화권 문화열차. 대만의 인기 아이돌 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와 영화.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화권 대중문화의 흐름은 90년대 중반 상황과 사뭇 다르다.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의 중화권 문화라면 유덕화, 장국영, 주윤발 등이 중심이 된 홍콩의 액션영화였다. <영웅본색> <천장지구> 등. 혹은 <동사서독> <의천도령기> <녹정기> 등의 무협물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남미녀의 만화적인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학교를 배경으로 꽃미남 꽃미녀가 등장하고 이들의 비현실적인 사랑이 만화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다. 대만에서 제작되는 일명 우상극(偶像劇: 아이돌 스타가 등장하는 청춘물. 주로 일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은 모두가 그렇다. 영화의 경우 드라마처럼 그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여성 팬들을 겨냥한 청춘드라마, 코

물론 이러한 국내에서 대만드라마의 소기의 성과에 대해 ‘일류(日流)’와 ‘한류’를 통해 단련된 대만 대중문화가 생산해내는 대만 이상극이 역으로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대륙의 드라마나 홍콩의 영화에 비해 이를 수용하는 한국인의 정서와 크게 괴리감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대만 대중문화의 유입이 드라마 중심인 가운데 주걸륜의 영화는 보기 드문 경우로 젊고 유능한 대만가수가 감독, 극본을 맡아 한국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주걸륜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은 2008년 1월 10일 한국개봉 당시 20여개관을 통해 소규모 개봉을 했다. 2007년 11월 8일에 개봉한 이안 감독의 <색, 계>가 많은 상영관을 확보하며 개봉을 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현지 개봉 후 반년이 지나서야 소규모로 한국 시장에 그의 영화가 개봉된 것을 보면 이안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 명성에 주걸륜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은 1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비슷한 규모로 개봉했던 일본영화 <허니와 클로버(ハチミとクローバー, Honey & Clover, 2006)>와 <황색눈물(黄色い涙, Yellow Tears, 2007)>이 각각 4만명 정도의 관객을 불러 모았던 점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성과였다. 특히 <황색눈물>은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 ‘아라시(嵐)’ 전 멤버가 출연하였음에도 그 성과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주걸륜이 한국에서 스타성을 확보하자 그가 주연한 <쿵푸덩크(大灌籃, Kung Fu Dunk, 2008)> 또한 한국에서 개봉이 결정되었고, 그는 2008년 1월과 2월 한 달 간격으로 방한하였다.

관객들의 영화 선택에 있어서 스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¹⁵⁾ 중화권

미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정재용, 『씨네21』, 「[화류재건]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 대중문화의 세련된 변화」, 2008년 3월 4일자

15) 이에 대해 그래엄 터너(Graeme Turner)는 리처드 다이어(Richard Dyer)의 「스타론」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리처드 다이어는 《스타론》(1982)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스타 이미지의 구축은 광범위한 매체와 컨텍스트의 범위를 가로지르는 제현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주류 언론뿐 아니라 팬 매거진도 포함하게 되고 또한 영화 속에서 연기뿐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포함하며 개인적인 등장

에서 주걸륜은 상당한 입지를 지닌 스타라고 평할 수 있다. 매 번 그의 음반이 발행될 때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영화 출연 및 연출에 대한 관심이 그러하다. 물론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한국 개봉 당시 홍보차 방한한 그를 기사화한 것 외에 한국 언론에서 그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새로이 그의 음악이나 영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의 방한을 계기로 그의 음악이나 이번 영화를 접한 한국 소비층의 반응에서 그가 지닌 대중성이 한국에서도 소통 및 유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대만 대중문화가 중국 대륙의 대중문화 보다 한국 시장에 더 근접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살펴 볼 수가 있다. 대만 같은 경우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도 있지만 두 번의 식민통치가 중국 대륙과 같은 문화 기조 아래 다른 성격의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대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대만은 서양문물을 접하게 된다. 1894년에 들어서 중일 갑오전쟁이 발발하면서 청 정부는 1895년 일본에 대만을 할양한다. 이때부터 대만의 일본 식민 역사가 반세기 동안 계속되며 일본은 타이베이(臺北)에 총독부를 설치했다. 일본은 대만인들에게 일본어를 쓰고 일본노래를 부르고 창시개명 등을 요구하면서 대만 문화 말살을 꾀하는 이른바 ‘황민화교육(皇民化教育)’을 실시한다.¹⁶⁾ 이러한 일본 식민지의 경험은 대만 문화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일본적 색채가 짙게 배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과거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치적 입장과 역사적 감정과는 상관없이 미국과 일본의 대중문화를 동경하고 그 코드에 맞춰서 한국 나름대로의 대중문

외에 일상적인 대화나 소문 등도 포함한다.” 그래엄 터너 지음, 임재철 외 옮김, 『대중영화의 이해』, 한나래, 1994, 149쪽.

16) “1937년 시작된 중국 침략과 태평양전쟁의 시작으로 일본의 남당 진출이 본격화되자 대만 사람들은 남진(南進)의 침병을 동원되었다. 당시 총독부는 대만인 6백만 명을 신민(臣民)으로 교화하기 위해 관혼상제를 일본화하고 대만인들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등 황민화 운동(皇民化運動)을 행했다.” 후지이 쇼조, 김양수 옮김, 『현대중국, 영화로 가다』, 지호, 2001, 170쪽.

화를 형성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대만과 한국의 대중문화는 성격을 같이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류’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대중문화는 공통분모를 형성했다.

하지만 대만에서의 ‘한류’열풍에 비해 한국에서 대만의 대중문화 유입 및 소비는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대만 대중문화를 접한 한국 소비층들 사이에서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그들 사이에서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 토론을 하고 중화권 뉴스를 전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단계이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개의 블로그를 통해서 주걸륜의 소식이나 근황을 전하면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새로 방영되는 대만드라마들이 영화와 드라마 공유사이트를 통해 번역되어 공유되는 단계 정도로 아직은 그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창의(創意)·산업을 세 가지 중요한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대만 정부의 ‘도전 2008 - 대만 발전 중점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대만 정부는 첫 번째로 문화예술 핵심 산업으로써 표현예술(음악, 극, 춤), 시각예술(회화, 조각), 전통예술을 예로 들며 예술의 창작과 발전을 중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핵심 기초로부터 예술을 응용하는 유행음악, 의상 디자인, 광고와 영상제작, 게임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자인 예술분야에 대한 중시를 피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창의와 주변 창의 산업을 중시하며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서로 관련이 있는 전시회, 매니지먼트, 출판, 광고기업들에 대해 지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⁷⁾ 만약 이러한 대만 정부의 계획이 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대만문화는 자국 내에서의 영향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에서의 마케팅까지 가능해진다. 이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면 대만 대중문화의 한국 유입은 지금보다는 활발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만이 자국의 대중문화 자체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만만의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

17) 于國華, 「文化·創意·產業 : 臺灣文化政策中的“產業”發展」, 福建藝術, 2006年 3月, 39~40쪽.

만의 경우 영화를 비롯한 여러 대중문화들이 대만 자국 자체에서 소화하여 수출하기 보다는 대륙이나 홍콩과 합작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말할 수 없는 비밀>를 예로 들면 감독, 극본, 연기 모두 대만 출신인 주걸륜이 모두 도맡아 했지만 대만 자체 영화가 아닌 대만, 홍콩 합작 영화로 한국에 수출됐다. 사실 영화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명 대만 출신 배우들이 대만에서 인지도를 쌓은 후 홍콩으로 건너가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여러 대작들을 가지고 한국 관객을 찾는 장첸(張震)과 서기(舒淇)도 대만 출신이지만 대륙과 홍콩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다. 대만 우상극 또한 일본과 한국 트렌디 드라마와 큰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비롯하여 여러 대만영화들을 바라보는 한국 소비층의 시선은 단순히 대만 자체의 특징적인 대중문화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중국 대륙이나 홍콩 대중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선이 대다수이다. 대만의 자국 문화 정책이 좀 더 확실하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륙이나 홍콩과 합작을 하더라도 중국 대륙과 홍콩과는 차별화되는 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3. 나오는 말

한국 대중문화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 대중문화는 미국이나 일본 대중문화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홍콩영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중화권 대중문화가 한국에 유입된 적이 있었고, 또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화권 국가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전파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중문화 시장에 전파된 중화권 대중문화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대륙이나 홍콩을 제외하고 대만문화가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유입되고 소비되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대만 출신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대만을 넘어 중화권의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통하는 주걸륜을 통해 한국에서의 대만 대중문화의 인지도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인들은 대만을 중화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는 대만만의 특징적인 문화풍토에 대한 개발과 선전, 대만 정부의 부족한 홍보 등의 이유를 꼽을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소비자들은 대만 대중문화를 쫓아 드라마나 영화 혹은 음악과 관련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대만 대중문화가 한국시장에서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 문화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물론 주걸륜의 감독 데뷔작을 가지고 기존에 한국에서 소비되었던 대만 영화와 그 영화를 만든 거장들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각을 달리하면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대만 대중문화의 유입이나 소비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이 자신들의 문화 프로젝트인 '도전 2008'을 통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재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또한 중국 대륙과 홍콩의 그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전과 같은 행보를 되풀이하면 이는 대만 정부의 문화 프로젝트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소비자층들은 여전히 대만 대중문화를 중국 대륙이나 홍콩의 대중문화와 구분하지 못하고 소비할 것이다. 이는 대만 대중문화가 가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서적 및 논문류

- 이종철, 『중국영화의 거장들』, 학고방, 2008
임대근 외, 『중국영화의 이해』, 동녘, 2007
정영호, 『중국영화사의 이해』,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그래엄 터너, 임재철 외 옮김, 『대중 영화의 이해』, 한나래, 1994
리처드 다이어, 주은우 옮김, 『스타-이미지와 기호』, 한나래, 1995
후지이 쇼조, 김양수 옮김, 『현대중국, 영화로 가다』, 지호, 2001
李硯琴, 「從臺灣文化源頭看兩岸統一的文化基礎」, 信陽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報) 第26卷 第5期, 2006年 10月
梁良, 「九十年代臺灣電影的政策」, 電影藝術, 2001年 4月
于國華, 「文化·創意·產業 : 臺灣文化政策中的“產業”發展」, 福建藝術, 2006年, 3月
周星, 『中國電影藝術史』, 北京大學出版社, 2003

2. 언론 매체 및 기타자료

- 「亞 톱스타 주걸륜, 1월 9일 전격 내한」, 『조이뉴스24』, 2007년 12월 28일자
『무비스트』, 2008년 1월자
『씨네21』, 2008년 1월 9일, 3월 4일자
스폰지 하우스 <http://www.spongehouse.com>
주걸륜 팬카페 <http://cafe.daum.net/jielun>
대만 관광청 <http://www.tourtaiwan.or.k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

<Abstract>

Reading Jay Chou, an aspect of Chinese Pop culture, in Korea

Kim, Jung-eun / Jung, Bo Young

In a globalized world where borders of nations are uncertain, the transcendence phenomena between cultural boundaries are accelerated by development of various media, generating power for each country to grow day after day by influencing one another. Geographically close to Chinese cultural area, Korea has influenced the area and also been influenced for centuries. While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Mainland China or Hong Kong was intimately associated, relation with Taiwan was relatively weak. They were not well acquainted in both political and cultural sectors after cutting off relations.

In such circumstance, <Secret>, a film directed by Taiwanese singer-songwriter Jay Chou quietly moved Koreans' hearts. With a relatively low-budget, his movie created sensation and earned star qualities.

Unlikely to other Chinese cultural areas, Korea and Taiwan shares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s. Those common points make two countries feel closer identity including culture. 'Korean wave' stroke Asian cultural area and Taiwan was one of nations it dominated. However, Taiwan wave in Korea is still calm. If Taiwan government invests cultural icons acceptable to other cultural areas in case of Jay Chou and strives to be distinguished among other Chinese area, 'Taiwan wave fever' may be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Chinese pop culture, Taiwan culture, Jay Chou, Secret

투 고 일 : 2010. 1. 10. / 심 사 일 : 2010. 1. 15. ~ 2010. 2. 10. / 게재확정일 : 2010. 2. 15.